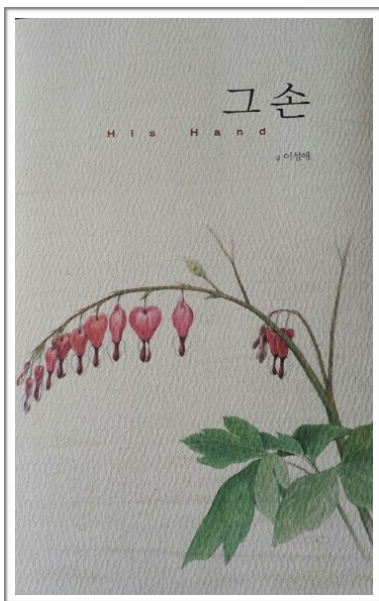




열세번째 이야기

"그 손"을 읽고



처음 “그 손”을 건네받았을 때 잔잔한 담낭화가 그려진 표지가 어찌나 사실적이고 곱고 예쁜지 신사임당의 초충도 일화가 잠시 떠올랐다. 표지의 담낭화처럼 귀하고 소중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내 손에 쏙 들어온 “그 손”을 펼쳐들었다. 김내현 목사님 우리 곁을 떠나신지 벌써 2년이 되어오고 그 ‘사랑하는 남편을 추모하며’ 내신 책이었기에 목사님을 향한 그리움까지 덧입혀져 에필로그까지 한 숨에 읽어 내려갔다.

다섯 개의 큰 묶음아래 61개 소제목의 짧은 글들이 마치 담낭화 한 가지에 가지런히 피어난 꽃송이들처럼 하나하나 고운 자태를 맘껏 뽐내면서 또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온화한 겸손이 한껏 묻어있었다. 그저 일상에서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평범한 이야기들, 스쳐 지나가버리는 일상들 속에서 어쩔 그렇게 주옥같은 진리를 찾아내시는 것인지 신기하고 놀랍기만 했다. 잡초를 뽑다 생각하는 내면의 뜰, 피아노 음악을 듣다가 발견하는 악속의 무지개, 잘못 들어선 길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그 길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깨닫게 된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싱가포르 아파트 창가에 널려있는 무심한 빨래를 보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인간의 어리석음. 글을 읽으며 마음에 와 닿는 내용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그 일을 중단했다. 왜냐면 책 전체 거의 모든 글에 밑줄을 그어야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61편의 설교를 읽는 듯, 61편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듯. 61편의 은혜의 간증을 읽는 듯 내내 하나님 그 분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별 의미없이 지나치는 삶의 순간을 잡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뜻을 발견하는 권사님의 독백은 날마다 순간마다 권사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머나먼 곳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가 속한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으로 삶을 채워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능력이 내 손에,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짐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침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들을 계획하셨다.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다시 찾은 자녀들을 향한 꿈은 그들이 만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에까지 자라고 변화되는 것이다. 태초에 지으신 우리 모습 안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일 것 같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며, 심오한 뜻과 계획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본문 중에서 (글:김정년, 편집:이경주)



이 책의 저자인 이성애권사님은 부군 고 김내현목사님과 1994년부터 BEE Korea에서 사역하고 계시며 "해벽의 계단"이란 제목으로 시집을 출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슬하에 아들.자부. 두 손주를 두셨습니다.오래 전부터 써 두셨던 글을 모아, 김목사님의 유언에 따라 이번에 "그손"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셨습니다.

에필로그 중에서 발췌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내 손을 잡고 한 번도 놓지 않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려보려 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편린들에 빠짐없이 깃든 주님의 사랑을 적어보려 했습니다. 우둔한 글이 그 무엇도 충분히 표현하진 못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BEE 소식

-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지난 5.6일 110여명의 비 가족이 모여 하나되는 All & One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 중간 평가의 의미로 조원 모두가 잠언까지 완독한 조원에게는 상품이 수여됐습니다.여기까지 완독 못하신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통독에 참여하여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소망합니다.
- 5월부터 네팔을 시작으로 아웃리치가 있게됩니다. 시간이 가능한 곳으로 우리 모두 나가서 현장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현지 학생들과도 교제하는 귀한 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 6월에 서서평 선교사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에서 헌신하신 선교의 현장을 찾아가는 "찾아온 사랑을 찾아서"가 개설됩니다.